

## 사사기에 사용된 **טַפֵּשׁ** 동사 우리말 번역 제안 —사사 옷니엘을 중심으로—

장석정\*

### 1. 들어가며

사사기는 ‘사사’들의 활약상에 초점을 맞춰 기록한 책이다.<sup>1)</sup> 그런데 우리말 성서들을 보면<sup>2)</sup>, 각 사사의 이야기에서 **לֹאֲרַפֵּשׁוּךָ אֱלֹהֵיךָ** (삿 3:10상)과 같은 히브리어 문장이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는 맥락으로 번역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지만 사사기의 히브리어 본문에는 각 사사의 이야기에서 단 한 번도 명사형 ‘사사’(טַפֵּשׁ)가 사용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말 번역에서 마치 명사형 ‘사사’가 사용된 것처럼 번역하고 있는 것은 자칫 오해의 소지를 만들 수 있다. 오히려 각 사사의 이야기에서는 명사형 ‘사사’ 대신에, 예외 없이 동사 **טַפֵּשׁ**가 사용되고 있다. 이 동사는 영어 성서에서는 일반적으로 ‘judge’(재판하다) 동사를 사용하여 번역하고 있는데, 이런 영어 번역은 마치 ‘사사’의 역할이 재판하는 영역에만 국한된 것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 성서는 최소한 히브리어 동사를 ‘동사’로 번역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 반면에 우리말 성서는 사사기에서 동사 **טַפֵּשׁ**가 사용된 곳마다 ‘사사가 되다’라고 번역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사사’라는 명사형이 의미하는 직책도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사사’라는 명사가 사용된 것처럼 번역하는 것은 독자들의 본문 이해에 걸림돌이 된다.<sup>3)</sup>

\*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가톨릭관동대학교 구약학 교수. schang15@cku.ac.kr. 이 연구는 가톨릭관동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음(CKURF-201602040001).

1) 사사기 본문의 편집역사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가 읽는 히브리어 성서 본문(BHS)을 중심으로 이에 관한 우리말 번역 문제를 다루기로 한다. 개괄적인 성서 편집에 관한 연구는 다음을 참고하라. 민영진, “성서의 학문적 편집: 그 필요성과 편집형태”, 『성경원문연구』 3 (1998), 7-19.

2) 『개역』, 『개역개정』을 말한다.

3) 히브리어의 우리말 번역에 관한 연구는 다음을 참고하라. 노세영, “Kipper 의미와 우리말 번

본 논문은 사사기의 본문에 사용된 **שָׁפַט** 동사의 의미를 잘 드러낼 수 있는 번역을 제안해 보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단순히 새로운 번역 제안을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안이 근거한 **שָׁפַט** 동사의 언어적 의미와 사사기 이외의 본문에 대한 우리말 번역의 예를 살펴봄으로써, 이 새로운 번역 제안이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 보려고 한다. 이런 연구 목적을 위해서 물론 사사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사들의 경우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시도는 할 것이지만, 보다 깊이 있는 번역 제안을 위해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사 웃니엘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새로운 번역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려고 한다. 더 나아가서 이 웃니엘의 경우에 대한 새로운 번역 제안이 다른 사사들의 경우에도 일관성 있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 2. **שָׁפַט** 동사의 의미

사사기에는 많은 ‘사사’(שָׁפַט, judge)들이 등장하고, 이들은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 히브리어 **שָׁפַט**는 동사 **שָׁפַט**라는 행위를 시행하는 데 관련된 사람을 말한다.<sup>4)</sup> 동사 **שָׁפַט**는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요약하면 ‘재판하다’(judge)와 ‘다스리다’(govern)라는 뜻을 갖고 있다.<sup>5)</sup> 포롭찬(Porúbčan)도 동사 **שָׁפַט**의 다양한 의미를 제안하는데, 요약하면 ‘재판하다’와 ‘다스리다’의 뜻으로 본다.<sup>6)</sup>

소긴(Soggin)도 **שָׁפַט** 동사의 의미를 두 가지로 보는데, 첫째는 재판관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뜻이며, 둘째는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의미를 갖는 어떤 공동체를 다스리는 역할을 한다는 뜻이라는 것이다.<sup>7)</sup> 니디치(Niditch)는 사사기 2:17과 2:19를 예로 들면서 사사기 2장은 신학적인 경향이 짙은 발췌

역에 관한 제안”, 『성경원문연구』 25 (2009), 7-29.

4) Jack M. Sasson, *Judges 1-12*, The Anchor Yale Bible (New Haven: Yale Press, 2014), 186.

5) *TDOT*, XV, 411; *BDB*, 1047.

6) 다양한 의미를 그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결정하다(decide), 논쟁을 해결하다 2) 소송을 해결하다 3) 사람들의 권리를 찾도록 도와주다 4) 분사형 *šōfēṭ*는 ‘사사’의 뜻을 가지며, 소송을 해결하거나 사람들의 권리를 찾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말함 5)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데, *šāpaṭ-šōfēṭ*의 형태로 나타남 6) 재판하다 7) 벌을 주다(punish) 8) *šōfēṭ*라는 분사형으로 ‘주인’(master) 혹은 ‘통치자’(ruler) 등의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Štefan Porúbčan, *Sin in the Old Testament: A Soteriological Study* (Roma: Herder, 1963), 38.

7) 사사기의 사사들은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에 재판이나 소송을 중재하는 역할과는 관련이 없다. 대사사들은 군사적인 지도자나 백성들의 생활에 있어서의 지도자의 역할을 했다. J. Alberto Soggin, *Judges*, OTL (London: SCM Press, 1981), 2.

문이라고 보고,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충성하도록 영감을 주는 사람으로서, 적절한 언약의 행위에 모범이 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sup>8)</sup>

펜샴(Fensham)과 밴 셀스(Van Selms)는 ‘사사’의 우선적인 의미를 재판관 직책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 **שֹׁפֵט** 동사는 ‘다스리는 것’과 ‘재판하는 것’에 모두 연관되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본다.<sup>9)</sup> 또한 리히터(Richter)에 따르면, ‘사사’는 한 성읍과 그 주변 지역의 행정관(civil administrator)으로서, 지파의 장로들에 의해서 그 직책에 임명되었다고 한다.<sup>10)</sup> 이시다(Ishida)에 따르면 사사들이 전쟁터에서 승리한 이후에 일반적으로 그들의 지파의 통치자로서 임무를 맡게 되고 평생 그 일을 하게 된다고 주장한다.<sup>11)</sup>

정리하면 동사 **שֹׁפֵט**는 ‘재판하다’와 ‘다스리다’의 뜻을 가진 동사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 문맥상 ‘재판하다’의 의미를 적용해서 어색한 경우에 ‘다스리다’의 의미로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두 가지 역할을 하는 직책을 명사형으로 **שֹׁפֵט**라고 히브리어로 표기하고 일반적인 통치자나 지도자와는 구별되도록 ‘사사’로 번역하는 것에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이 ‘사사’가 **שֹׁפֵט**했다고 히브리어 본문에 기록되어 있을 때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이다.

### 3. 각 사사들에 대한 우리말 번역

사사기에는 6명의 대사사들<sup>12)</sup>과 6명의 소사사들의 기록이 있다. 이들이 ‘사사’라고 불리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사사기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3:7-16:31에 대한 서론의 역할을 하고 있는 2:11-3:6의 내용 중에서 명사인 ‘사사’(שֹׁפֵט/שֹׁפֵטִים)가 총 6회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sup>13)</sup> 이 경우에는

8) Susan Niditch, *Judges*, OTL (Louisville: Westminster Press, 2008), 2.

9) F. C. Fensham, “The Judges and Ancient Israelite Jurisprudence”, *Die Ou Testamentiese Werkgenootskap in Suid-Afrika* 2 (1959), 18, 20-21; A. van Selms, “The Title ‘Judge’”, *Die Ou Testamentiese Werkgenootskap in Suid-Afrika* 2 (1959), 48-50; R. R. Hutton, *Charisma and Authority in Israelite Society* (Minneapolis: Fortress, 1994), 53에서 재인용.

10) Wolfgang Richter, “Zu den ‘Richtern Israels’”, *ZAW* 77 (1965), 71.

11) Tomoo Ishida, “The Leaders of the Tribal League”, *Revue Biblique* 80 (1973), 514-530; R. R. Hutton, *Charisma and Authority in Israelite Society*, 54에서 재인용.

12) 학자들에 따라서 드보라의 이야기에 나오는 바락과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을 사사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사로 간주하기에는 사사의 역할을 했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이 둘은 제외하기로 한다.

13) 삿 2:16-19에 ‘사사’(단수 3회, 복수 3회)라는 분사형 명사가 사용되고 있다.

특정한 사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의미로 사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사’라는 직책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각각의 사사들 이야기에서 명사 **שפוט**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고, 동사 **שפט**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말 성서에서 한결같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는 의미로 번역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용된 것은 **שפט**라는 동사인데, 이것이 마치 ‘사사가 되다’라는 의미인 양 번역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들이 ‘사사’로 불리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사사들에게 **שפט** 동사가 사용된 경우에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각 사사들에게 **שפט** 동사가 사용된 경우에 우리말 번역은 한결같이 ‘사사가 되다’로 번역하고 있다.

- |                       |  |
|-----------------------|--|
| 1. 옷니엘 (3:10상)        | 이스라엘의 <u>사사가 되어</u> 나가서 싸울 때에                            |
| 2. 에훗                 | [            ?            ]                              |
| 3. 삼갈                 | [            ?            ]                              |
| 4. 드보라(4:4)           |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u>사사가 되었는데</u>                               |
| 5. 기드온 <sup>14)</sup> | [            ?            ]                              |
| 6. 돌라(10:1-2)         | 이스라엘의 <u>사사가 된 지</u> 23년 만에 죽으매                          |
| 7. 야일(10:3-5)         |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u>사사가 되니라</u> .                            |
| 8. 입다(12:7)           | 이스라엘의 <u>사사가 된 지</u> 6년이라.                               |
| 9. 입산(12:8-10)        | 이스라엘의 <u>사사가 되었던</u> 라.<br>그가 이스라엘의 <u>사사가 된 지</u> 7년이라. |
| 10. 엘론(12:11-12)      | 이스라엘의 <u>사사가 되어</u> 10년 동안 다스렸다. <sup>15)</sup>          |
| 11. 압돈(12:13-15)      | 이스라엘의 <u>사사가 되었던</u> 라.<br>이스라엘의 <u>사사가 된 지</u> 8년이라.    |
| 12. 삼손(15:20; 16:31)  | 이스라엘의 <u>사사로</u> 20년 동안 지냈더라.                            |

이상에서 보듯이 대사사들 중에는 에훗과 기드온을 제외하면 모두 **שפט** 동사가 사용되었고 삼갈을 제외하면 소사사들의 경우에도 전원 **שפט** 동사가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שפט** 동사가 사용된 모든 경우에 사사기에서는 우리말 번역을 ‘사사가 되다’로 하고 있다. 목적어 **אֶת־יִשְׂרָאֵל**이 있기 때문에 (3:10상), **שפט** 동사는 타동사가 분명한데도, 이를 자동사로 번역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14) 기드온과 모세에 관한 비교 연구는 다음을 참고하라. 안근조, “전형장면(Type-Scenes)을 통한 문학비평적 읽기: 모세(출 3:1-4:18)와 기드온(삿 6:11-24)의 소명장면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43 (2006), 7-34.

15) 여기서 ‘다스렸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도 동사 **שפט**인데, 이에 관한 논의는 본 논문의 후반부에서 다루기로 한다.

사사기에 나오는 **טַבַּח** 동사의 번역에 관한 논의는 단순히 이 동사가 사용된 문장만을 분석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사가 되었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후맥락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טַבַּח** 동사가 사용된 사사의 이야기가 기록된 전체 본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할 때에 비로소 **טַבַּח** 동사가 사용된 문장의 우리말 번역이 사사기의 맥락에 맞게 되며, 독자들이 사사기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사사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가장 처음 기록된 웃니엘의 경우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려고 한다.

## 4. 웃니엘 이야기

### 4.1. 사사기 3:7-11

- 7)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 8)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팔 년 동안 섬겼더니
- 9)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יְשׁוּעָה)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웃니엘이라
- 10) 여호와와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טַבַּח)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매 웃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 11) 그 땅이 평온한 지 사십 년에 그나스의 아들 웃니엘이 죽었더라(『개역개정』)

웃니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3:7은 이스라엘이 악을 행했는데,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는 내용을 소개한다. 이런 이스라엘의 악행은 사사기의 본론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3:7-16:31의 본문에서는 소위 순환구조라고 하는 내용 속에서 첫째 단계로 간주된다.

3:8의 내용은 이런 이스라엘의 악행 때문에 진노하셨고 이스라엘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시며 8년간 이 왕을 섬기게 되었음을 알려준다. 3:9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웃니엘이라는 구원자(יְשׁוּעָה)를 세워주셨다. 물론 우리가 본

문에서 기대하는 것은 ‘구원자’라는 단어가 아니라, ‘사사’(טַדִּישׁ)라는 단어일 것이다.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워주셨다는 내용이 필수적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구원자’를 세워주셨다고 되어 있고, 이런 경향은 다음에 나오는 에훗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삿 3:15). 이제 웃니엘은 이스라엘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구원할 ‘구원자’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사명을 받았다. 본문의 9절까지는 ‘사사’라는 직책이 웃니엘에게 적용되지 않았다.

3:10에 와서야 비로소 ‘여호와와 영’이 웃니엘에게 임해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우게 된다. 이미 앞선 9절에서 ‘구원자’라는 역할로 소개되었는데, 여기에서 다시 ‘사사’라는 직책 이름을 사용해서 번역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더구나 ‘사사’라는 명사가 사용된 것이 아니라, 동사 טַדִּישׁ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의아하다.

이렇게 사사 역할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것인데, 그 역할 중의 하나가 전쟁에 나가 싸우는 것이고, 이 역할을 수행한 웃니엘은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가 문제인데, 일단 이렇게 이방 민족의 왕을 물리치고 나서 과연 웃니엘은 무슨 역할을 했느냐 하는 것이다. 성서본문은 11절에서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웃니엘이 죽었다고 기록하면서 그의 이야기는 끝난다. 이방 민족을 물리치고 나서 그가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상의 웃니엘 이야기 중에서 새롭게 번역될 필요가 있는 부분은 동사 טַדִּישׁ가 사용된 3:10상이다.

#### 4.2. 사사기 3:10상

여호와와 영의 신이 그의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 (『성경 개역』, 1938)

여호와와 영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개역』, 1961)

주의 영이 그에게 내리니, 웃니엘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전쟁터에 싸우러 나갔다. (『표준새번역』, 1993)

여호와와 영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לְטַדִּישׁ אֶת־יִשְׂרָאֵל) 나가서 싸울 때에 (『개역개정』, 1998)

이상의 우리말 성서들은 1938년의 『성경 개역』부터 일관성 있게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라고 번역하고 있다. 비교분석을 위해 LXX와 영어성서들을 살펴보자.

And the Spirit of the Lord came upon him,  
 and he judged Israel(ἔκρινε τὸν Ἰσραήλ); and he went out to war (LXX)  
 The spirit of the Lord came upon him, and he judged Israel;  
 he went out to war, (NRS)  
 The spirit of the Lord descended upon him and he became Israel's chieftain.  
 He went out to war, (NJPS)

NJPS 영어번역은 우리말 번역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수령이 되었다’라는 번역에서 우리말 번역은 ‘수령’(chieftain) 대신에 ‘사사’라는 단어로 대체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NRS 영어번역은 LXX의 본문과 마찬가지로 ‘그가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다’라고 번역함으로써, 동사 **שפט**의 의미 중에서 한 가지를 적용해서 번역했지만,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번역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동사의 또 다른 의미인 ‘다스리다’(rule)를 적용하지 않고 ‘재판하다’(judge)의 뜻만 적용한 결과이다.<sup>16)</sup>

이 구절의 번역에 있어서 고려할 점은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과 웃니엘이 사사가 된 것과의 관계는 명백한 데 비해서, 웃니엘이 사사가 된 것과 나가서 싸운 것의 관계는 번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말 번역들은 모두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웃니엘이 사사가 된 것’과 ‘나가서 싸운 것’이 하나의 흐름처럼, 즉 계속적인 인과관계처럼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NRS와 NJPS 성서는 웃니엘이 사사가 된 것과 전쟁에 나가서 싸운 것을 연결동작으로 보지 않고 한 호흡 끊어서(NRS), 혹은 완전히 마침표로 구별해서(NJPS) 번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여호와의 영이 내려서 웃니엘이 사사가 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가 사사가 된 것과 전쟁에 나가서 싸운 것은 반드시 인과관계로 볼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관찰의 결과는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사사가 되었다’는 의미는 무엇인지 질문하게 만든다. 단순히 사사라는 직책을 맡게 되었다는 것이라면, 여전히 여태까지 ‘사사’라는 직책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사사가 되었다’는 번역으로는 본문의 의미가 모호해 진다는 것이다.

이 구절에서 사용된 **שפט** 동사(Qal impf. 3 m.s.)의 의미를 고려해 볼 때, 우리말 번역은 마치 본문에 ‘사사’라는 명사가 있고 ‘그것이 되다’는 의미로 번역되었다. 마치 ‘대통령이 되다’(become a president)와 같은 맥락이다.

16) 영어 동사 ‘judge’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1) 재판하다 2) 심판하다 3) 판단하다. 따라서 영어 동사 ‘judge’로는 **שפט** 동사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인 ‘다스리다’라는 뜻을 나타낼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영어에도 동사 자체의 의미가 ‘대통령이 되다’인 동사는 없기 때문에, 명사인 ‘대통령’과 동사인 ‘되다’를 같이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즉, 『개역개정』은 ‘사사가 되다’라고 번역함으로써, **וַיִּשָּׂא** 동사가 갖고 있는 의미들 중에서 어떤 한 가지를 선택하지 않고, 단지 사사가 되었다는 사실만을 언급한다. ‘사사가 되다’라는 표현의 의미를 설명하지 않은 채, 독자들에게 짐작하게 함으로써 번역 성서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이 히브리어 본문은 웃니엘이 ‘사사’가 되었다는 사실이 무슨 뜻인지 알려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그가 사사가 되었다는 사실만을 알려주려는 의도로 기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웃니엘은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들 중에서 가장 먼저 소개되는 사사이다. 따라서 그 전까지는 소개된 적이 없는 이 새로운 직책 ‘사사’에 관해서 어느 정도의 설명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나가서 싸울 때에’라는 내용을 통해서 이 ‘사사’라는 직책의 여러 역할 중의 하나가 전쟁에서 싸우는 것임을 보여준다.

#### 4.3. 학자들의 3:10에 대한 번역 고찰

##### 4.3.1. Robert Boling (1975)

Yahweh's spirit came upon him; and he judged Israel.

He went forth to war, ...<sup>17)</sup>

볼링은 ‘judged’라는 표현을 따로 다루고 있는데, 이 구절의 문맥에서는 ‘군대를 동원했다’(mobilized)는 의미라고 보고 있다.<sup>18)</sup> 리히터(Richter)에 따르면, 이것이 동사 **וַיִּשָּׂא**의 본래적인 의미라는 것이다.<sup>19)</sup> 이렇게 본다면 웃니엘이 사사 역할을 한 것이 전쟁 상황에서 군사들을 동원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 되는데, 이런 해석은 소사사들의 경우에 사용된 **וַיִּשָּׂא** 동사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소사사들의 경우에는 전쟁의 상황 자체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수십 년 동안 군사를 동원하는 일만 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 4.3.2. Alberto Soggin (1981)

The spirit of Yahweh descended on him; he was a judge over Israel

and went out to war ...<sup>20)</sup>

17) Robert Boling, *Judges*, AB (New York: Doubleday, 1975), 80.

18) *Ibid.*, 81.

19) Wolfgang Richter, “Zu den ‘Richtern Israels’”, 61-68.

20) J. Alberto Soggin, *Judges*, 45.



소킨은 비록 본문번역에서는 ‘he was a judge over Israel’이라고 했으나, 주석을 하면서 번역의 다른 가능성으로 ‘exercised his judgeship’이라는 제안을 하고 있다.<sup>21)</sup> 이것은 ‘그는 사사직분을 수행했다’라고 번역될 수 있는데, **שפוט** 동사를 ‘동사’로서 번역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사사직분 자체의 의미가 모호하기 때문에, 여전히 만족스러운 번역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 4.3.3. Susan Niditch (2008)

And there was upon him the spirit of Yhwh, and he judged Israel,  
and he went forth to war, ...<sup>22)</sup>

니디치는 ‘he judged Israel’이 무슨 의미인지 전혀 논의하지 않고 있다. 단순히 여호와의 영을 받은 옷니엘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관찰내용만 소개하고 있다.<sup>23)</sup>

#### 4.3.4. Jack Sasson (2014)

Endowed with zeal for the Lord, he became judge in Israel.  
When he set out in battle, ...<sup>24)</sup>

쌌슨은 옷니엘이 여호와의 영을 받은 결과 사사로서의 임기(tenure)를 시작했다고 보면서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한 군대를 모집하는 데 충분한 명성을 갖게 되었다고 본다.<sup>25)</sup>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사사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논의하지 않고 있다. 즉, 동사 **שפוט**의 의미를 심도 있게 다루지 않고 있다. 반면에 2:16-17의 본문을 해석하는 부분에서는 ‘사사’의 주요 기능은 백성들을 구출(rescue, **שׁוּט**)하는 것이라고 본다.<sup>26)</sup> 이상의 학자들의 저서에서 보듯이, **שפוט** 동사의 의미를 히브리어 본문의 맥락에 부합되도록 번역한 경우는 찾을 수 없었다.

21) Ibid., 46.

22) S. Niditch, *Judges*, 51.

23) Ibid., 56-57.

24) Jack M. Sasson, *Judges 1-12*, 211.

25) Ibid., 217.

26) 또한 쌌슨은 ‘재판하는 것’(judging)과 ‘구조하는 것’(rescuing)이 나란히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것을 기록한 여러 본문(시 36:6; 72:4; 76:9; 109:31; 사 51:5; 겔 34:22)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Ibid., 192.

## 5. 새로운 번역 제안

히브리어 동사 **דָּסַדְסָה**를 번역한다는 것은 동작 내지는 행동을 표현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이 동사가 가진 의미를 살려서 ‘다스리다’ 혹은 ‘재판하다’ 등으로 번역할 수 있다는 말이다. 여기에서 **דָּסַדְסָה** 동사를 ‘다스리다’의 의미로 번역하는 경우에는 우리말 번역도 달라져야 한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말 번역에는 한결같이 ‘사사’라는 명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옷니엘의 경우에 이렇게 동사적 의미만으로 본문의 맥락을 충분히 전달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3:10상의 경우에 『개역개정』은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로 번역하고 있다. 따라서 ‘사사가 되어’라는 번역 대신에 동사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나가서 싸울 때에”가 될 것이다. 문맥이 어색하게 되고 이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게 된다.

**דָּסַדְסָה** 동사가 사용된 이 문장을 맥락에 맞게 번역하기 위해서는 동사적 의미를 사용하되 동시에 직책에 한정된 의미로 번역하지 말아야 한다.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라는 『개역개정』의 번역은 ‘사사’라는 직책에 초점을 맞춰서 번역한 예라고 하겠다. 이렇게 번역한다면 과연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할 수 없게 된다. 비록 ‘사사’라는 직책이 무슨 일을 하는 자리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적어도 옷니엘이 그런 사사의 직책을 수행했다는 것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דָּסַדְסָה** 동사의 ‘다스리다’는 의미를 사용하되, 기존의 다른 이스라엘의 지도자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직책인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는 맥락으로 번역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기존의 우리말 번역과 같이 ‘사사로서 다스렸다는 내용’과 ‘나가서 싸웠다는 내용’을 연결시켜서 번역할 필요는 없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NRS와 NJPS의 번역처럼 이 두 내용을 구별해서 번역하는 것이 **דָּסַדְסָה** 동사의 뜻을 더 잘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3:10상에 대한 번역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여호와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  
렸다. 그가 나가서 싸울 때에 ...”

일단 옷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메소보다미아 왕을 물리친 후에는 물론 그가 계속해서 전쟁에 나가서 지휘관 역할을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더구나 3:11에는 그 땅이 평온한 지 사십 년에 그나스의 아들 옷니엘이 죽었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보면, 옷니엘은 사사로서 다스리는

역할을 40년 동안 했다고 볼 수 있고 적어도 이 기간 동안에는 땅이 평온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땅이 평온했다는 의미는 전쟁이 없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sup>27)</sup>, 이 40년 동안 사사 옷니엘의 역할은 전쟁 지휘관을 포함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었다.

필자의 이런 번역 제안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은 입다와 삼손의 경우에는 명확하게 그들이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טפֿט했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וַיִּשְׁפֹּט יִפְתָּח אֶת־יִשְׂרָאֵל שֵׁשׁ שָׁנִים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육 년이라.(12:7)

Jephthah led Israel six years (NJPS)

וַיִּשְׁפֹּט אֶת־יִשְׂרָאֵל בְּיָמֵי פְּלִשְׁתִּים עֶשְׂרִים שָׁנָה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십 년 동안 지냈더라.(15:20)

He led Israel in the days of the Philistines for twenty years (NJPS)

וְהוּא שִׁפֹּט אֶת־יִשְׂרָאֵל עֶשְׂרִים שָׁנָה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십 년 동안 지냈더라.(16:31)

He had led Israel for twenty years (NJPS)

사사기는 삼손이 다른 사사들처럼 이스라엘을 טפֿט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삼손의 사사직(judgeship)은 레히(Lehi)에서의 승리(15:14-17)로 그 효력이 시작되었고, 가사에서의 승리와 죽음으로(16장) 끝이 났다고 본다.<sup>28)</sup> 물론 삼손이 사사직을 수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히브리어 본문 상에서 동사 טפֿט만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말 번역 ‘이스라엘의 사사로’라는 표현은 어색하다. 오히려 NJPS의 번역처럼 ‘삼손이 이스라엘을 이십 년 동안 인도했다’라는 맥락의 번역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이 경우에 필자가 제안하는 번역은 다음과 같다.

입다가 육 년 동안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12:7)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십 년 동안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15:20)

27) 여호수아의 기록을 참고하면, ‘땅의 평온’이 ‘전쟁이 없어서 땅이 평온했다’는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다(수 11:23; 14:15; 21:43-44). 여호수아서에 대한 번역제안 연구는 다음을 참고하라. 민경구, “여호수아 1:8에 대한 새로운 번역 제안-행위냐, 토라냐.,” 『성경원문연구』 36 (2015), 30-50.

28) Barry Webb, *The Book of Judges*, NICOT (Grand Rapids: Eerdmans, 2012), 415.

삼손이 이십 년 동안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16:31)

사사에서 우리말 번역이 ‘다스리다’로 되어 있는 경우는 엘론(12:11 שפט)의 경우를 제외하고, 총 8회이다.<sup>29)</sup> 이 중에서 사사기 8장의 기드온 이야기를 포함한 7회의 경우에 히브리어 동사 משל이 쓰였으며 단 1회는 동사 שרר가 사용되었다.<sup>30)</sup> משל 동사는 일반적으로 ‘ג’와 함께 사용되어서 ‘다스리다’(to rule, govern)의 뜻을 나타낸다. 정치적인 상황에서는 ‘왕으로서 다스리다’(to rule as king)라는 뜻을 가진 מלך 동사의 뜻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차이가 있다면 מלך 동사는 통치자 자신에게 초점을 더 맞추는 반면에 משל 동사는 통치행위 그 자체에 더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sup>31)</sup>

쌌슨(Sasson)에 따르면, 기드온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에게 고대 자료들에서 잘 나타나는 의미에서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sup>32)</sup> ‘משל ג’라는 관용적 표현은 대부분의 경우에 정치적인 의미를 나타낼 때 사용되며, 때때로 왕이 주어일 경우에도 사용되곤 하지만(수 12:2; 왕상 5:1),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sup>33)</sup>

따라서 משל 동사가 비록 ‘왕으로서 다스리다’라는 의미를 항상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일반적으로 우리말 성서에서 ‘다스리다’로 번역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שפט 동사가 사용된 경우에 단순히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번역하는 것은 שפט 동사의 존재를 드러낼 수 없는 번역이 된다. 즉, מלך 동사가 ‘왕으로서 다스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처럼 שפט 동사도 ‘사사로서 다스리다’라는 의미를 살려서 번역한다면, 우리말 성서에서 일반적으로 ‘다스리다’로 번역되는 경우들과 구별되어 번역되는 장점이 있다고 하겠다.

또한 소사사의 경우에 שפט 동사의 번역을 ‘사사로서 다스리다’로 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가 있는데, 사사기 12:11에 나오는 엘론의 기록이 그것이다.

“그 뒤를 이어 스블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십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וַיִּשְׁפֹּט אֶחָרָיו אֶת־יִשְׂרָאֵל אֵילֹן הַזְּבוּלֹנִי וַיִּשְׁפֹּט אֶת־יִשְׂרָאֵל עֶשְׂרֵי שָׁנִים)

29) 삿 8:23(2회); 9:2(2회), 22; 12:11; 14:4; 15:11. 사사에서 שפט 동사가 ‘다스리다’로 번역된 경우는 엘론의 경우가 유일하다.

30) שרר 동사는 일반적으로 왕족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관리가 백성을 다스리는 경우에 사용되었다. TDOT, XIV, 198-199.

31) TDOT, IX, 69.

32) Jack M. Sasson, *Judges 1-12*, 365.

33) Ibid.

이 구절에서 보듯이 שָׁפַט 동사가 2회 사용되었는데, 첫 번째는 ‘사사가 되어’로 번역하고 두 번째는 ‘다스렸더라’로 번역하고 있다. 같은 שָׁפַט 동사가 사용되었는데, 우리말 번역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다. 마치 엘론이 사사가 되는 단계가 있고 이것과는 별도로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단계가 있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맥락을 적용하여 2회 사용된 שָׁפַט 동사를 1회만 번역하면, שָׁפַט 동사 번역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히브리어 본문의 의미를 잘 드러낼 수 있다.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십 년 동안 다스렸더라.”

## 6. 사사기 이외의 본문에 대한 우리말 성서 번역

새로운 번역을 제안하는 근거 중의 하나는 열왕기하 23:22에 나오는 ‘사사’에 대한 언급이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מִיְמֵי הַשְּׂפֹטִים אֲשֶׁר שָׁפְטוּ אֶת־יִשְׂרָאֵל)

in the days of the chieftains who ruled Israel (NJPS)

우리말 번역에서도 ‘사사들’(הַשְּׂפֹטִים)이라는 주어가 שָׁפַט 동사를 받을 때, ‘다스리다’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다른 근거는 룻기 1:1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וַיְהִי בִימֵי שְׂפֹט הַשְּׂפֹטִים)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In the days when the chieftains ruled (NJPS)

룻기 1:1에도 שָׁפַט 동사(Qal. inf. constr)가 사용되고 있는데, 복수명사인 ‘사사들’이 주어로 사용된다. 우리말 번역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로 번역하고 있는데, ‘치리하다’라는 동사는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통치자가 어떤 지역이나 나라 따위를) 도맡아 다스리다’의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스리다’로 바꿀 수 있다. 따라서 결국 룻기 1:1상의 번역은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가 된다.

이렇게 보면, 열왕기하 23:22와 룻기 1:1의 본문에서는 ‘사사들’이라는 명사와 함께 동사 שָׁפַט가 사용되었을 경우에 공통적으로 우리말 번역에서 ‘다스리다’로 번역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사사기 본문 속에서 שָׁפַט

동사를 굳이 ‘사사가 되다’라고 번역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왕정 이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지도자들을 2:16-19에서 분사형 명사를 사용해서 ‘사사들’이라고 통칭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사사들의 경우에는 동사 שפט를 사용해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맡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말 번역에서도 ‘다스리다’의 맥락으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שפט 동사를 ‘다스리다’로 번역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는 사무엘상 7:6, 15-17 본문의 우리말 번역에서 발견할 수 있다.

(6)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וַיִּשְׁפֹּט שְׁמוּאֵל אֶת־בְּנֵי יִשְׂרָאֵל)

(15)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וַיִּשְׁפֹּט שְׁמוּאֵל אֶת־יִשְׂרָאֵל כָּל־יְמֵי חַיָּו)

(16) 해마다 벤엘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וַיִּשְׁפֹּט אֶת־יִשְׂרָאֵל)

(17)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나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וַיִּשְׁפֹּט אֶת־יִשְׂרָאֵל)

사무엘은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막고, 전쟁의 지도자로서 싸움에서 승리했으며, 특히 평생 이스라엘을 다스렸다.<sup>34)</sup> 『개역개정』은 사사기 3:10에서와 똑같이 히브리어 동사 שפט가 사용되었는데, 이 구절에서는 ‘사사가 되었다’로 번역하지 않고, ‘다스렸다’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사기 3:10상의 웃니엘의 경우에도 ‘그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로 번역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sup>35)</sup>

엄밀하게 말하면 단순히 사사 이전의 출애굽 인도자들(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사사’라는 새로운 직책을 가진 사람들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번역하는 것은 역시 ‘사사’라는 명사가 본문 중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취약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각각의 사사의 경우에 이

34) 올드(Auld)는 ‘엘리’(1 Sam 4:8)와 ‘사무엘’(1 Sam 7:15-17)을 사사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사사’의 직책을 이어가고 있는 인물들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고 보면서, 다윗의 선임자(precursor)로 본다. 그러나 삼상 12:11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사무엘도 입다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내셔서 적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사람들로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사무엘이 ‘사사’의 직분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Graeme Auld, *I & II Samuel*, OTL (Louisville: WJK, 2011), 89.

35) 같은 동사가 사용된 경우, 서로 다르게 번역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우리말 번역의 일관성에 관한 연구는 다음을 참고하라. 이수만, “성경 번역에서의 일관성 점검과 한글 성경 역본들”, 『성경원문연구』 28 (2011), 170-203.

미 서론 부분(삿 2:16-19)에서 ‘사사/사사들’이라는 호칭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웃니엘, 드보라, 입다, 삼손 등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맥락에서는 그들이 사사이기 때문에 ‘사사로서’라는 표현을 첨가해서 번역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된다.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는 하는데, 장로들이나 제사장들 같은 기존의 지도자들과는 다른 새로운 성격의 지도자인 사사로서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말 번역을 통해 보여줄 필요가 있다. 사사기 본문에서 동사 **מַשִּׁי**가 사용된 문장의 경우에 ‘사사로서 다스리다’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이제 웃니엘의 경우를 근거로 하여, 각각의 사사들의 경우에 새롭게 제안된 우리말 번역을 정리해 보기로 하자.

- 3:10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가 나가서 싸울 때에
- 4:4 그 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 10:2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3년 만에 죽으매(돌라)
- 10:3 야일이 일어나서 이십이 년 동안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야일)
- 12:7 입다가 육 년 동안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 12:8 입산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 12:9 그가 칠 년 동안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입산)
- 12:11 엘론이 십 년 동안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 12:13 압돈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 12:14 압돈이 팔 년 동안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 15:20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십 년 동안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 16:31 삼손이 이십 년 동안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렇게 번역할 경우에 각각의 사사가 ‘사사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 역할은 전쟁에서 싸우는 것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었음을 보여줄 수 있게 된다. 기존의 우리말 번역대로 ‘사사가 되었다’를 고집하면, ‘사사’라는 직책의 역할에 대한 설명도 없이 사사로 임명되었다는 사실만을 전달하게 되는 제약이 있다.

## 7. 결론

이상의 연구 결과를 정리해 보면, 사사기에서 **מַשִּׁי** 동사가 사용된 경우에 있어서 우리말 번역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이 동사의 의미

를 분명히 정의할 필요가 있었다. 우리말 번역 ‘사사가 되었다’는 무엇보다도 **שפוט** 동사의 뜻을 전혀 대변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마치 ‘사사’라는 명사가 히브리어 본문에 사용된 것처럼 번역함으로써 독자들을 혼란에 빠뜨린다. 또한 ‘사사가 되었다’는 번역의 의미도 모호하기 때문에, 단순히 사사기 저자가 웃니엘이 사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전하려고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שפוט** 동사가 사용된 웃니엘의 본문 3:10에 대한 새로운 번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שפוט** 동사의 의미를 ‘재판하다’라는 영역에 국한시키지 말고, 여러 학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이 동사의 포괄적인 의미인 ‘다스리다’로 이해할 것을 제안한다. 물론 ‘재판하다’라는 뜻도 포함해서 보다 넓은 의미로, 왕정시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사람들의 직책을 ‘사사’라고 한다면, 그들의 역할은 ‘다스리는’ 것이 될 것이다. 사무엘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우리말 성서(『개역개정』)는 동사 **שפוט**가 사용된 사사 엘론의 경우(삿 12:11)에는 ‘다스리다’로 번역하고 있는 것도 새로운 번역 제안을 뒷받침해 준다.

위에서 언급한 히브리어 동사 **שפוט**의 의미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들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23:22, 룻기 1:1, 사무엘상 7:6, 15-17 본문에 대한 우리말 번역의 예(‘다스리다’)에서 알 수 있듯이 **שפוט** 동사의 번역에 있어서 ‘사사가 되었다’는 번역은 사사기에만 적용이 된 어색한 번역이며, 전체 성서 번역의 일관성 면에서도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렇게 본다면 웃니엘의 경우에 **שפוט** 동사가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우리말 번역을 새롭게 제안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다른 사사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번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적어도 우리말 성서가 일관성 있게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는 맥락으로 번역하고 있는 각 사사들의 경우에 있어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번역하는 것이 동사의 의미를 더 잘 드러내고, 나아가서 사사들의 역할을 더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본 연구는 보여준다.

#### <주제어>(Keywords)

사사기, 사사, 번역, 동사, 이스라엘.

The Book of Judges, Judge, Translation, Verb, Israel.



<참고문헌>(References)

- 노세영, “Kipper 의미와 우리말 번역에 관한 제언”, 『성경원문연구』 25 (2009), 7-29.
- 민경구, “여호수아 1:8에 대한 새로운 번역 제언-행위나, 토라나”, 『성경원문연구』 36 (2015), 30-50.
- 민영진, “성서의 학문적 편집: 그 필요성과 편집형태”, 『성경원문연구』 3 (1998), 7-19.
- 안근조, “전형장면(Type-Scenes)을 통한 문학비평적 읽기: 모세(출 3:1-4:18)와 기드온(삿 6:11-24)의 소명장면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43 (2006), 7-34.
- 이수만, “성경 번역에서의 일관성 점검과 한글 성경 역본들”, 『성경원문연구』 28 (2011), 170-203.
- Ackroyd, P., “The Composition of the Song of Deborah”, *VT* 2 (1952), 160-162.
- Amit, Y., *The Book of Judges: The Art of Editing*, Leiden: Brill, 1999.
- Auld, G., *I & II Samuel*, OTL, Louisville: WJK, 2011.
- Block, D., *Judges, Ruth*, New American Commentary, Nashville: Broadman and Holman, 1999.
- Boling, R., *Judge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6A, Garden City: Doubleday, 1965.
- Brett, M. G., “Literacy and Domination: G.A. Herion’s Sociology of History Writing”, *JSOT* 37 (1987), 15-40.
- Brettler, M., *The Book of Judges*, Old Testament Reading, New York: Routledge, 2002.
- Brettler, M., “The Book of Judges: Literature as Politics”, *JBL* 108:3 (1989), 395-418.
- Butler, T. C., *Judges*, WBC 8, Nashville: Thomas Nelson, 2009.
- Campbell, A. F., *The Study Companion to Old Testament Literature*, Old Testament Studies 2,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1989.
- Campbell, A. & O’Brien, M., *Unfolding the Deuteronomistic History: Origins, Upgrades, Present Text*, Minneapolis: Fortress, 2000.
- Fensham, F. C., “The Judges and Ancient Israelite Jurisprudence”, *Die Ou Testamentiese Werkgemeenskap in Suid-Afrika* 2 (1959), 18-21.
- Frolov, S., “Rethinking Judges”, *CBQ* 71 (2009), 24-41.
- Frolov, S., *Judges*, FOTL 6b, Grand Rapids: Eerdmans, 2013.
- Hauser, A., “The ‘Minor Judges’: A Re-Evaluation”, *JBL* 94 (1975), 190-200.
- Hutton, R. R., *Charisma and Authority in Israelite Society*, Minneapolis: Fortress,

1994.

- Irwin, B. P., “Not Just Any King: Abimelech, the Northern Monarchy, and the Final Form of Judges”, *JBL* 131 (2012), 443-454.
- Ishida, T., “The Leaders of the Tribal League”, *Revue Biblique* 80 (1973), 514-530.
- Klein, L. R., *The Triumph of Irony in the Book of Judges*, The Library of Hebrew Bible/Old Testament Studies, New York: Bloomsbury T&T Clark, 1988.
- Lilly, J. P. U., “A Literary Appreciation of the Book of Judges”, *TynBul* 18 (1967), 94-102
- Niditch, S., *Judges*, OT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8.
- O’Connell, R. H., *The Rhetoric of the Book of Judges*, VTSup 63, Leiden: Brill, 1996.
- Peterson, B. N., *The Authors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 Locating a Tradition in Ancient Israel*,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4.
- Porúbčan, Š., *Sin in the Old Testament: A Soteriological Study*, Roma: Herder, 1963.
- Provan, I., Long, P., and Longman III, T., *A Biblical History of Israel*, Louisville: Westminster Press, 2003.
- Richter, Wolfgang, “Zu den ‘Richtern Israels’”, *ZAW* 77 (1965), 40-72.
- Richter, Wolfgang, *Traditionsgeschichtliche Untersuchungen zum Richterbuch*, Bonner biblische Beiträge 18, Bonn: P. H. Hanstein, 1963.
- Sasson, Jack M., *Judges 1-12*, The Anchor Yale Bible 6D,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4.
- Schneider, T. J., *Judges*, Berit Olam,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2000.
- Soggin, J. Alberto, *Judges: A Commentary*, OTL, Philadelphia: Westminster, 1981.
- Sweeney, M. A., “Davidic Polemics in the Book of Judges”, *VT* 47 (1997), 517-29.
- Van Selms, A., “The Title ‘Judge’”, *Die Ou Testamentiese Werkgemeenskap in Suid-Afrika* 2 (1959), 48-50.
- Webb, B. G., *The Book of Judges: An Intergrated Reading*, JSOTSup 46,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87.
- Webb, B. G., *The Book of Judges*, NICOT, Grand Rapids: Eerdmans, 2012.
- Weinfeld, M., “The Period of the Conquest and the Judges as seen by the Earlier and Later Sources”, *VT* 17 (1967), 93-113.

<Abstract>

**A Proposal for the Korean Translation of the Verb **טָפַשׁ**  
in Judges: Focused on Judge Othniel**

Sok-Chung Chang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newly translating what has currently been translated as “he became a judge of Israel” in Judges 3:10a. The verb **טָפַשׁ** is used in the stories of individual judges in the book of Judges. The noun **טָפַשׁ** in participle form has never been used for any of the judges. However, the Korean Bible translates as if there is a noun form in the sentence. We do not know the exact meaning of ‘becoming a judge’ according to the text in Judges. Therefore, we need to have a new translation for Judges 3:10a as well as for all other cases in Judges where the verb **טָפַשׁ** is used.

This study proposes that the plausible meaning ‘to rule’ needs to be applied to the verb **טָפַשׁ**, and indicates that ‘to judge’ is only one of many possible meanings of the verb **טָפַשׁ**.

Furthermore, other passages in the Hebrew Bible than Judges also support the proposed translation of ‘he ruled Israel’ instead of ‘he became a judge for Israel.’ 2 Kings 23:22, Ruth 1:1, and 1 Samuel 7:6, 15-17 show that the verb **טָפַשׁ** is already translated as ‘he ruled Israel’ in the Korean Bible. These examples suggest that the translation ‘he became a judge for Israel’ is done only in Judges and not elsewhere in the Hebrew Bible.

Not only in the case of Othniel, but also in all other cases of judges in the book of Judges, the translation of the verb **טָפַשׁ** should be coherent and reasonable. In order to convey the meaning of the verb **טָפַשׁ** and to identify the role of a judge as the ruler for the people of Israel (both as a commander in war and a civil administrator), the proposal for a new translation, ‘he ruled Israel as a judge’ is a promising candidate.